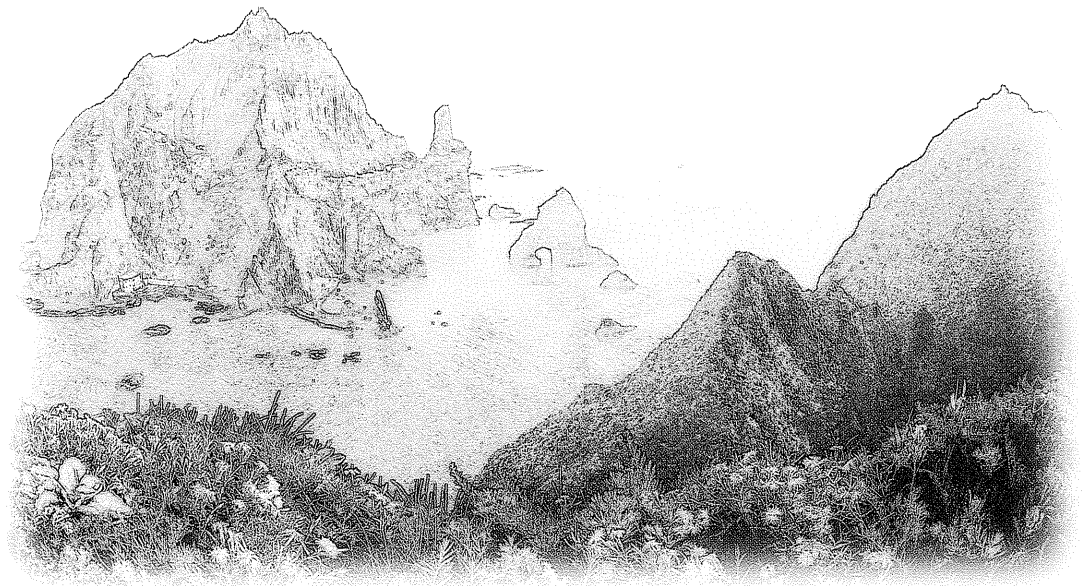


독도연구저널 | 2008 여름 제 2 호

CONTENTS

03	inside & outside	국가 해양력을 키워야 하는 이유
04	OPINION	중·일 동중국해 공동개발 가능성과 우리나라의 선택
06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북한의 태도
08		일본이 이 자료를 발간한 이유
10	기획특집	“샌프란시스코 협약의 ‘아전인수’ 식 해석은 곤란”
12		‘독도가 한국령’이라는 일본 문서는 왜 외면하는가
14		“일본 외무성 지도도 독도를 일본 영토 밖으로 표시”
16	독도 갤러리	독도의 여름
18	정책리포트	중국의 해양권의 확보 전략
20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22	이슈브리핑	일본 시마네 현(縣), 독도 교육용 부교재 제작 추진
22		더욱 치열해지는 주요국의 해양 관할권 경쟁
23	해외논조	“일본의 오키노토리시마 지배는 중국의 태평양 진출에 장애”
24	Global Ocean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끝은 어디인가?
26	Focus	6월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 회의 주요 쟁점
28	독도 ARCHIVE	“우산도와 울릉도는 별개의 섬”
29		「다케시마를 없애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30	이 책을 말한다	바다가 일본의 미래다
31	학술포럼	북극을 이용한 비즈니스는 가능한가?

발행일 | 2008년 5월 30일 발행인 | 이정환 발행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편집·기획 | 독도연구센터 주소 | '21-270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652번지 KBS미디어센터
 전화 | (02)2105-4950 팩스 | (02)2105-4959 디자인·인쇄 | 서울기획문화사 (02)2272-1533



일본 외무성의 독도 홍보자료 비판

“일본 외무성 지도도 독도를 일본 영토 밖으로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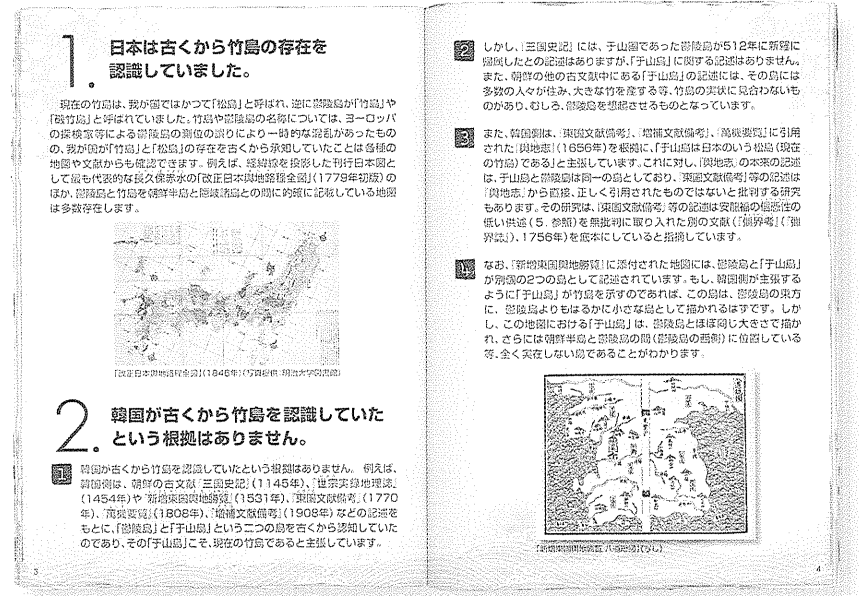
내

박 병 설 / 재일 독도문제연구Net 대표

일본 외무성 팸플릿에서 일본은 옛날부터 독도를 잘 인지하고 있었으나 반대로 한국은 독도를 잘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의 지식이 정확하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일본의 지도로서 19세기 경위도를 투영한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의 『개정 일본여지도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이하 세키스이圖)를 사용하였다. 한편 한국의 지식이 부정확하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한국의 지도로서는 일본과 같은 19세기 지도가 아니라 16세기의 관찬서 『신증 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회도(繪圖:그림지도)「팔도총도」를 게재하였다.

원래 회도는 지도와 달리 내용이 부정확한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회도인 「팔도총도」에서 멀리 떨어진 섬의 크기나 위치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팔도총도」는 단지 동해에 울릉도와 우산도라는 두 섬이 존재한다는 공간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넘어 우산도의 위치나 크기 등에 관해 논하는 것 자체가 거의 무의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외무성 팸플릿은 우산도가 “울릉도보다 훨씬 작은 섬으로 그려져야 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그러한 비판은 회도가 아니라 세키스이圖 같은 본격적인 지도에 내려져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세키스이圖야말로 松島(독도)를 竹島(울릉도)와 같은 크기로 그리고 있으므로 외무성 스스로도 그러한 비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그뿐만아. 세키스이圖 자체도 일본에 결코 유리한 자료가 아니다. 팸플릿이 설명하듯이 세키스이圖는 1779년에 초판이 간행되었으나 초판은 일본 각지를 색으로 구분할 때 죽도와 송도의 색을 조선과 같이 무색으로 처리했다. 그렇게 되면 보는 이로 하여금 죽도와 송도가 일본 영역 밖이라는 인상을 주기 쉽다. 이 때문에 팸플릿에서는 죽도와 송도가 오키국과 같은 색으로 칠해진 제6판을 골라 게재한 것으로 보인다. 제6판은 보는 이에게 죽도와 송도가 일본령이라는 인상



“일본이 결코 자국에 유리하다고 할 수 없는 세키스이圖를 팸플릿에 실은 이유는 그것 외에는 적절한 다른 지도가 없기 때문이다. 에도 시대에 막부는 국회도(國繪圖)를 4회 작성했으나 그 어느 것에도 죽도와 송도는 그려져 있지 않다.”

을 지니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6판의 세키스이圖는 에도 막부가 1696년에 죽도(울릉도)를 일본령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도항을 금지한 사실을 모르는 출판사가 죽도와 송도를 마치 일본령인 듯 착색하여 출판한 무책임한 사찬(私撰) 지도로, 에도 막부의 영토인식과는 관계가 없다.

세키스이圖는 초판이든 제6판이든 여기에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죽도와 송도를 반드시 한 쌍으로 하여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체로 송도라고 할 때 소나무가 한 그루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름을 붙인 것은 죽도와 대(對)를 이루는 섬이라는 생각에서다. 이처럼 에도시대 후기를 대표하는 세키스이圖에서 죽도와 송도가 세트로 다루어졌으므로 에도 시대이든 메이지 시대이든 죽도(울릉도)에의 도항금지 는 동시에 송도(독도)에의 도항금지로 일반적으로 이해되었던 것이다.

더구나 막부는 이노우 타다타카(伊能忠敬)의 측량에 기초하여 본격적인 지도 『대일본연해여지전도(大日本沿海輿地全圖)』를 작성했다. 이 지도는 총 매수가 이백 수십 매에 달하는 일본 최초의 근대적인 관찬 지도로 이노우圖라고도 한다. 이 이노우圖에도 죽도와 송도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막부가 죽도(울릉도)의 도항을 금지했기 때문에 죽도와 그 부속도서인 송도(독도) 역시 일본령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인식은 메이지 정부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이 때문에 지리 담당 당국인 내무성은 죽도와 송도를 일본 영토 밖이라는 판단 하에 관찬 지도와 관찬 지지를 작성한 것이다. 다만 하나의 예외는 『대일본부현관할도(大日本府縣管轄圖)』(1881)이다. 이 지도책 안에 극동 지역 전체를 그린 「대일본전국 약도(大日本全國略圖)」의 초판은 잘못하여 송도와 죽도를 일본의 서북 지방과 같은 색으로 채색했으나, 개정판은 이런 오류를 바로잡아 송도와 죽도를 조선과 마찬가지로 무채색으로 했다.

결국 일본의 영토인식을 보여주는 관찬 지도에서 독도는 일제 강점기를 제외하면 1954년에 이르기까지 일본령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해방 후 일본 관리가 독도에 상륙을 강행, 소동을 일으켜 세간의 주목을 받은 뒤에야 비로소 일본은 독도를 일본령으로 하는 지도를 작성한 것이다.